

# 전남농협, 상반기 농수산물식품 수출 '굉충'

### 1천730만달러 전년비 58.3% ↑ 전국 최고 성장률 농산물·가공식품 등 수출액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전남농협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0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1천73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남에 이어 충북 43.3%, 경북 35.8%

로 나타났다. 종류 별로는 농산물 1천4만 달러(72% 성장), 가공식품 380만 달러(54% 성장), 수산물 347만 달러(33% 성장)다. 개별 품목 기준 상위 5대 품목은 배(550만 달러), 전복(332만 달러), 유자·가공식품(286만 달러), 파프리카(285만 달러), 토마토(48만 달러)다. 수출국 권역 별 점유 비율은 일본(42%

%, 미주권(28%), 중국권(15%), 동남아권(6%), 유럽권(5%) 순이다. 가장 많은 수출 품목 '배'는 2021년산 작황 호조에 힘입어 대만, 미국 등으로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육성한 '신화', '창조' 신 품종을 첫 수출한 결과,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맛과 식감이 우수한 국내 육성 신품종이며 성장속진제 처리를 하지 않아 중·소과 위주로 생산되지만 첫 개화가 저온 피해에 강한 품종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복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안전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제

고로 활력을 받고 있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대지 4천241㎡, 건물 1천598㎡)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2개년 지원 사업(2021-2022년)에 선정돼 오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상품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흥 두원농협이 주도하는 유자가공식품은 유자차 외에도 꾸준한 신제품 개발(플라젠, 유자나 등)을 통해 베트남, 중국, 미국, 유럽 시장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수출 주도 농협 33개소로 결성된 광주전남농협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 농협 간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출 전담 산지 육성을 위한 수출 전문조직으로 배, 파프리카, 키위, 표고버섯 등 4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품목별 참여 농협은 배(나주배원에농협, 신북농협, 나주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조합공동사업법인), 파프리카(광양원에농협), 키위(별교농협), 표고버섯(정남진장농협)이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한류에 힘입어 전남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며 "올해는 수출액 3천만 달러 달성의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올해 상반기 전남농협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 품목인 '배' 선별·포장 작업이 한창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전남도와 함께 '풍광수토' 2만포 10kg를 부산 공급업체인 서인인터내셔널과 제주 공급업체인 좋은쌀유통을 통해 부산·제주도 중·대형마트 40여개 매장에 공급하고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전남 쌀 '풍광수토' 부산·제주 집중 공략

### 쌀의 날 기념 중·대형 마트 40곳 2만포 공급

전남 쌀 대표 브랜드 '풍광수토'가 전국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부산과 제주도 공략에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0일 "최근 전남도와 함께 '풍광수토' 2만포 10kg를 부산 공급업체인 서인인터내셔널과 제

주 공급업체인 좋은쌀유통을 통해 부산·제주도 중·대형마트 40여개 매장에 공급하고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은행사는 제8회 '쌀의 날(8월 18일)'을 기념하고 전남 쌀 대표 브랜드 '풍광수토'를 널리 알리기 위해 10kg 1

포 구매 고객에게 쌀 500g을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풍광수토 브랜드 누적 매출액은 부산·경상권 50억원(2천43t), 제주도 122억원(5천255t)으로 2017년 풍광수토 리뉴얼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풍광수토는 남녘의 신선한 바닷바람(풍), 풍성한 햇볕(광), 깨끗하고 맑은

물(수), 오염되지 않은 기름진 흙(토)에서 재배한 전남농협 대표 브랜드로, 2020년부터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명가명품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공급 과잉 기조 속에서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 보유 과다, 수입쌀 방출로 쌀 산업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 처해 있어 농업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지' 개발 본격화

### 도농기원, 농작물 생육 촉진·축사 악취저감 효과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0일 "농산부산물을 이용해 친환경 유기배제에 사용 가능한 유용미생물 배지 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농축산물 시장이 커지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 공급량이 2020년 4천604에서 지난해 4천818으로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미생물은 작물 생육 촉진, 병해충 예방, 토양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기배제용 미생물 배지는 구입이 쉽지 않아 유기배제 농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유기배제로 사

용 가능한 미생물 배지 개발을 위해 농산부산물과 같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맞춤형 미생물 배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 중인 배지는 유산균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부산물을 이용해 추출·배지 제조 공정을 확립했고 이를 활용해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배양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소연 친환경농업연구소 연구사는 "친환경 배제 맞춤형 배지와 그에 맞춰 효율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지원을 통해 전남도가 친환경 유기배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도농기원, 병해충 예방·방제 '총력'

### 고온다습한 날씨 지속...농작물 피해 우려 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병해충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강화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병해충으로는 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

류와 고추 역병·탄저병, 파수 탄저병 등이다. 10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벼 도열병은 병원균의 침입 부위에 따라 잎과 이삭, 줄기 등에 발생할 수 있으며 거름기가 많은 논을 중심으로 잎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출수기를 앞두고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삭이 한두 개 개기 시작할 때 예방 위주의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오는 15일까지 지를 벼 주요 병해충 중점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량작물 중점 방제 대상 병해충은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먹노린재 등 해충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이다. 지역마다 발생이 많아 피해가 우려되

는 병해충도 포함된다. 고추 역병·탄저병의 경우 비가 잦을 때 발생되기 쉽다. 발생되면 급속도로 번져 방제가 어려운 만큼 병든 전엽원은 즉시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 등 물빠짐을 좋게 해주고 적용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박관수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 상황 분석,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축협, 조합원·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광주축협은 10일 "전남 조합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조합원 본인과 자녀 25명을 선발, 3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장학금 지원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축산업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 복지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주축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